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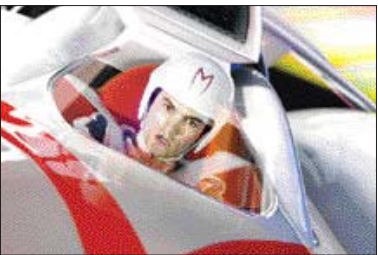
# 가족과 친구와 즐기는 '시네마 천국'

## ■ 비디오 가이드

### 아깝게 놓친 영화 골라보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색다른 비디오와 DVD가 속속 출시돼 극장에서 아깝게 놓친 영화, 또는 극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인기 '미드'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

▷블록버스터, 고화질로 즐겨볼까 =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형제가 만든 '스피드 레이스'는 요시다 타쓰오의 일본 TV 만화영화 시리즈 '마하 고고'를 리메이크한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개봉 당시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냈지만 '영상 충격'이라는 평가가 손색



스피드 레이스

없을 정도로 색색의 영상이 한 번쯤 볼 만한 작품이다. 가수 겸 연기자 비가 조연으로 출연해 예상보다 비중이 높은 비의 영어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할리우드 액션 누아르 '스트리트 킹'은 개봉 당시 한국을 직접 찾아 홍보에 나섰던 키에누 리브스의 주연작. 리브스가 억울하게 동료 경찰관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진범을 찾기 위한 60시간의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리브스 외에 포레스트 휘테커, 휴 로리, 크리스 에번스 등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해 있다.

▷극장에서 놓친 한국영화들 = 스크린 단골 작가인 강풀의 동명 만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바보'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바보

관람 포인트는 바보 승룡 역을 맡은 배우 차태현의 연기 변신과 하지원의 청순한 모습. '바보'는 배우들의 호연, 잔잔하면서도 탄탄한 이야기, 김정권 감독의 기본기가 엿보이는 연출력이 눈길을 끈다.

'아들은 가라!'라는 문구를 내걸어 1

/연합뉴스

편에 이어 흥행에 성공한 성인 코미디 '색즉시공' 2편도 출시됐다.

남자 주인공은 그대로 임창정이 맡았고 여주인공은 하지원에서 송지효로 바뀌었다. 배경은 그대로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넘치는 캠퍼스.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작품이다.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완소' 작품들 = 할리우드의 소문난 재즈 애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로 유명한 재즈 음악가 토니 베넷의 삶과 음악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극장 개봉 없이 바로 출시된 '토니 베넷-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래'는 베넷의 과거 행적을 쫓아가며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스트우드 감독이 직접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맡았다.



색즉시공 2

청춘들의 방황과 고민을 담은 일본 영화 '새드 베케이션'은 '유레카'로 제5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 연맹상을 받았던 아오야마 신지 감독이 구성에만 10년을 쏟은 작품이다. 인간 내면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며 국내에서 인기 많은 청춘 스타 오다기리 조가 출연해 눈길을 끈다.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오리존티 부문 초청작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미드' 보자 = 미국 드라마 DVD 박스 세트의 최대 장점은 여러 에피소드를 연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다음 편에 어떻게 될지 답답한 궁금증을 바로바로 풀 수 있다.

추억의 슈퍼맨 클라크 켄트의 유년기를 새로 조명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스몰 빌'의 7번째 시즌 DVD가 출시됐다. 시즌 6이 남긴 클라크의 영원한 연인 라나 랭(크리스틴 쿡)의 생사 여부가 밝혀진다.

올 추석 시즌은 다양한 소재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 두편이 나란히 개봉한 점이 눈에 띈다. 11일 현재 가장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은 영화 '맘미아'며 '신기전'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추석 관객 사냥에 나선 영화들을 소개한다.

#### ▲올학교 ET

추석 등 명절 극장가는 코미디가 대체. 하지만 올해의 경우 특별히 눈에 띄는 작품이 없다.

그런 점에서 '올학교 ET'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작품이다. 일단 코미디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김수로가 주인공을 맡았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기대감이 높다.

평생 몸 만들지만 해오던 체육선생에서 어느날 학교에서 찢리지 않기 위해 영어 교사로 변신하는 과정을 통해 유쾌한 웃음을 이끌어낸다. 다양한 영화에서 코믹 연기를 해 온 이현우와 '말아톤' 등에 출연했던 백성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2세 이상 관람가>

#### '맘미아' 예매율 1위

#### '신기전' 선두 추격전

#### ▲신기전

세종 시대에 실존했던 세계최초의 다연발 로켓화포를 소재로 한 '신기전'은 역사적 사실과 가상의 이야기를 버무린 작품이다.

'강철중'의 정재영이 설주 역을 맡았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허준호가 장강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한은정이 홍리 역으로, 국민배우 안성기가 세종 역으로 출연한다.

'악숙', '와일드 카드'로 함께 호흡을 맞춘 김유진 감독과 희곡작가 이만희가 다시 손잡았다.

대중적인 오락영화를 지향한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설주와 홍리의 로맨스, 코믹한 설주의 캐릭터 등 영화적 요소를 가미했으며 극 중반부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신이 눈길을 끈다. <15세 이상 관람가>

#### ▲20세기 소년

우라사와 나오키가 10년간 연재한 동명 만화가 원작으로 이번엔 상영되는 작품은 제1장, 감림 편이다. '예언의 서'에 따라 지구를 멸망시키는 절대 악과 이를 막으려는 '켄지' 일당이 벌이는 전쟁 같은 이야기를 화면에 담았으며 SF, 어드벤처, 액션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드라마 '하얀거탑', '웰컴투 맥도날드'의 카라사와 '일본 침몰'의 토시아키와 도요카와 예츠시 등이 출연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올학교 ET



신기전

20세기 소년

#### ▲방콕 데인저러스

환락의 도시 방콕을 배경으로 전문 길러의 활약상을 그린 액션 영화다. '더북' 등의 작품을 통해 액션 영화에서 진가를 발휘해온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으며 홍콩 스타 양채니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프로 킬러인 조가 방콕에서 의뢰받은 일을 수행하던 중 벌어지는 사건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 ▲스타워즈 : 클론의 전쟁

추석 시즌에 선보이는 유일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스타워즈' 시리즈의 조지 루카스가 총제작을 맡았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에피소드2 : 클론의 습격'과 '에피소드3 : 시스의 복수'에 걸쳐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맷 데이먼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은하계 공화국 분리주의 세력과 공화주의자들이 맞서는 클론의 전쟁이 발발하자 제다이 제일의 실력자 오비완 케노비와 스카이워커는 분리주의자 두루 백작에 맞서 싸운다. <전체 관람가>

/ 17면으로 계속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Cinema featuring movie listings, showtimes, and prices for various films like 'All School ET', 'Mamiya', 'Shinkien', and '20th Century Boy'.